OCI, 사천에 태양광발전 40MW 설치

OCI(대표 백우석)가 경남 사천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

OCI는 5월24일 사천시청에서 정만규 사천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하일규 지사장, 김정욱 에너지나눔과평화 이사장, 김상열 OCI 부회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저탄소 에너지 복지실현 공동이행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OCI는 사천시내 건물옥상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익의 일정부분을 에너지나눔과평화를 통해 빈곤층에 25년간 지원한다.

OCI나눔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면 25년간 이산화탄소 54만톤을 감축해 2억그루의 수목 대체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OCI는 주장했다.

사천시는 하루 평균 태양광 발전시간이 4시간에 이를 정도로 태양광사업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OCI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총 300개 초등학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5/24>